



전북대 의대 학부모, 발전기금 500만원 기부

전북대 의학과 4학년 학생의 학부모인 이창수·정현숙씨 내외가 의대 발전기금으로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의대는 최근 임석태 학장과 권근산 교무부학장, 고명환 연구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을 초청해 발전기금 기탁식을 가졌다.

원광대 의대를 졸업하고 군산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수 원장은 현재 군산시 의사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둘째 아들이 6년 동안 공부하고 있는 전북대 의대에 학부모로서 조금이나마 후원할 수 있는 기회를 찾다가 전북의사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임석태 학장과의 인연으로 기부를 결정했다.

이창수 원장은 “오랜 인연을 맺어오고 있는 임석태 학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 마음으로만 생각해 왔던 기부를 실천하게 됐다”며 “우리 아들과 같은 전북대 의대 학생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임석태 학장은 “좋은 기회에 우리 의대 발전을 위해 기부를 결심해 줘 감사드린다”며 “이 기금을 학생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재학생, 칠보면서 농촌 일손 돕기 봉사

전주교육대학교 재학생 50명이 지난 14일 정읍시 칠보면 ‘현바람공동체’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주교대의 농촌 일손 돕기는 윤리교육과 김성현 교수의 인솔 아래 국립대학 육성사업 일환인 ‘지역사회 기반 농촌 봉사활동’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재학생들이 농촌인구의 고령화, 외국인 인력 수급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봉사활동을 나서며, 지역 연대감을 쌓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다.

김성현 책임교수는 “우리 학생들이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삶을 함께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이실론 실효이지만 농민들의 지도로 농사일을 배우며 열심히 임했다”고 전했다.

박병준 총장은 “따뜻한 나눔과 실질적인 도움을 통한 사회 공헌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꾸준히 펼쳐져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대학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현장민원 오늘부터 추진

남원시가 17일부터 취약계층 생활격차 완화를 위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생활현장민원 추진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민원, 120민원봉사대 이동별대방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별대방은 시민들의 수요요구와 호응도가 좋아 찾아가는 현장민원, 120민원봉사대 운영시 병행 운영,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읍면동 마을회관이나 다중집합장소에서 세탁 건조대장 전용탁자를 이용한 이불 등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를 말한다.

남원시는 이를 위해 ▲전담인력 1명(운전직)/공공근로자 1명 ▲2.5톤 트럭(내장탁차) ▲기존 드럼세탁기 2식 건조기 2식과 5월17일부터 드럼세탁기 3식 건조기 1식을 추가 설치 운영한다.

또한, 공공근로일지리를 활용해 세탁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 이불을 수거하고 세탁 후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백강규 소방소장은 “시민(수요자)중심의 행정추진과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자신감 있는 생활’

제31회 전북 스피치인 한마음축제 성료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본부가 주최하고 각 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 원우회가 주관한 제31회 전북 스피치인 한마음축제가 지난 14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주)서광출판공공장(주대운산)업개발 등의 후원으로 이뤄진 이날 행사에는 손명섭 대회장, 김양욱 대회 부부장, 김인철 대회추진위원장, 김기수 대회준비위원장, 이학보 대회후원위원장, 함경식 대회 고문 등이 임원들과 200여명의 스피치인들이 참석했으며, 개회식, 도민무료특강, 축하공연,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등으로 구성돼 진행됐다.

배우 김영섭씨의 노래와 개그맨 김영덕씨의 개그쇼, 개나리의 품바쇼, 이랑고고장구의 장구 공연, 문민오씨 외 1인의 기타공연과 수정이, 강혜원, 송화숙, 정순임

원 장기자랑도 눈길을 끌었다.

함께 진행된 대회공로 표창 수여식에서 손명섭 대회장, 김인철 추진위원장이 공로패 수상했으며, 신미자, 김정리, 박덕이 임화경 이은경 신미애씨가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손명섭 대회장은 인사말에서 “모두가 하나되어 소통하고 참여하라는 슬로건답게 스피치인 모두가 화합하고 소통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하자”며 “자기개발로 자신감 있는 생활 지도지역망을 개발하자”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황토현농협, NH농협손해보험 위더스(With-Us)상 수상

농협손해보험 전북지역총국(총국장 김현미)은 황토현농협(조합장 김재기)이 2022년 NH농협손해보험(대표 최문섭) 위더스(With-Us) 사무소에 선정돼 본점 회의실에 전달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재기 조합장을 비롯한 황토현농협 임직원과 NH농협손해보험 홍순광 부사장, 김현미 총국장, 이재연 정읍시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위더스상은 지역별 성장 가능한 거점 농·축협 사무소를 육성 및 격려하는 제도로 전북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인 보험사업 추진 등에 공로가 큰 황토현농협이 선정됐다.

홍순광 부사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NH농협손해보험 추진을 통해 농업인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황토현농협에 감사드리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기 조합장은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는 보험추진과 조합원 실익증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무주군·관내 농협, 제주도 일대 반딧불사와 관측행사 개최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김석중)은 농가소득 향상과 무주반딧불사와 관매 확대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동안 제주도 일대에서 관측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무주군과 무주군관내 농협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관측행사에는 무주군농촌활력과 이종현과장, 무주군농정지원단 윤한철단장, 구천동농협 주현우전무, 무주농협 이영철상무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행사를 진행한 서귀포농협 하나마트(현정실지점장)와 한림농협 하나마트(신동수 점장)는 매년 설문결과 추석명절에 무주반딧불사와 선물세트를 5톤차량으로 10여대 판매하는 최대 고객이다.

행사기간동안 5Kg 봉지사과를 시중가격보다 30%이상 저렴하게 판매했다. 무주반딧불 1입사과 2,000개를 준비해 내방하는 고객에게 증정도 했다.



제주도민 현모(56, 서귀포씨)는 “5월달에 먹는 사과가 향도 좋고 식감도 아삭하다”며 “앞으로는 무주반딧불사과만 구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효자2동 자율방재단, 주택가 화재 예방 앞장

전주시 효자2동 자율방재단(단장 김인순)이 주택가 화재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효자2동 자율방재단원 15명은 16일 이마트 전주점 부근에서 시민들에게 주택 화재의 위험성을 알리고 소방시설 설치와 주택가 화재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인순 단장은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8%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했다”며 “주택가 화재 예방을 위해 대시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효자2동 자율방재단은 불법쓰레기 투기 금지 캠페인, 에스컬레이터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제자교회, 가정의 달 맞이 김 400박스 전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전주제자교회(목사 박용태)는 지난 13일 평화2동 주민센터(동장 이영애)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500만 원 상당의 김 400박스를 기부했다.

박용태 목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자 조미김을 준비했다”며 “따뜻한 한끼를 위한 조미김처럼 우리 이웃들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제자교회는 매년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선교와 구제를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으며, 앞서 지난 설에도 백미 100포를 기부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호성동 지사협, 저소득 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원선)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6일 동주민센터(동장 서세현)를 방문해 저소득 중·고등학생을 위한 장학금 21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장학금은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중·고등학생 7명에게 각 30만원씩 전달될 예정이다.

정원선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 등으로 학습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학습의 기회가 줄어든 저소득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서세현 동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관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물질상면으로 도와주시는 동협의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임실 갈담초, 개교 100주년 기념 장학금 전달

임실 갈담초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정진열)는 개교 100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총동문회에서는 재학생 전체에게 장학금 5만원씩을 전달했다. 52회 졸업생인 박인기 공군참모총장은 재학생을 위해 특강도 실시했다.

한편, 갈담초 총동문회는 2021학년도 졸업생 전체에게 장학금 10만원씩을 전달한 바 있다.

정진열 회장은 “후배들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모교에서 힘차게 활동하고 공부해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것”을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임실군, 성년의 날 기념 ‘찬란한 20살’ 추진

임실군이 16일 ‘제50회 성년의 날’을 기념하여 관내 2008년생 청소년 175명에게 성년의 날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됐고, 1부에는 성년이 된 친구들에게 기념 카드를 발송하여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스무살의 빛나는 꿈과 밝은 미래’를 응원하는 축하의 메시지를 담았다.

성년의 날은 1973년 정부가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이며, 이 카드는 성년의 날 당일까지 각 가정에서 우편 배달됐다.

성년이 되기까지 시간의 소중함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도전과 꿈을 응원하는 성년으로서 가야 할 길에 대한 의미를 주었다.

지난 14일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진행된 2부에서는 청소년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란한 20살이라는 주제로 향수 및 잠미무드 등 만들기,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로를 축하하고 성년으로서 자부심 키우는 시간이 되었다.

/임실=전홍영 기자

무주가족센터, ‘추카추카 생일용품’ 무료 대여

무주군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는 ‘추카추카 생일용품’대여 서비스를 추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백일·돌상을 무료로 빌려주는 대여 서비스 ‘어화둥둥’을 시작으로 올해는 생일용품 대여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삼동회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장진원)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만 3세~12세 이하)’가 대상으로 축하 및 기념일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게 하며, 이용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자의 공유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대여용품은 감성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미니멀, 감성 현수막, 미니케이크 모자 등 13종 패키지의 소모품으로 구성됐으며, 대여 비용은 촬영·진행 제출 또는 SNS 인증사진 게시 등 홍보를 조건으로 무료로 운영한다.

대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1일(24시간)동안 이용 가능하며, 2주전부터 2일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